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한국산, 해산물, 항생제, 모니터링, 기준치 등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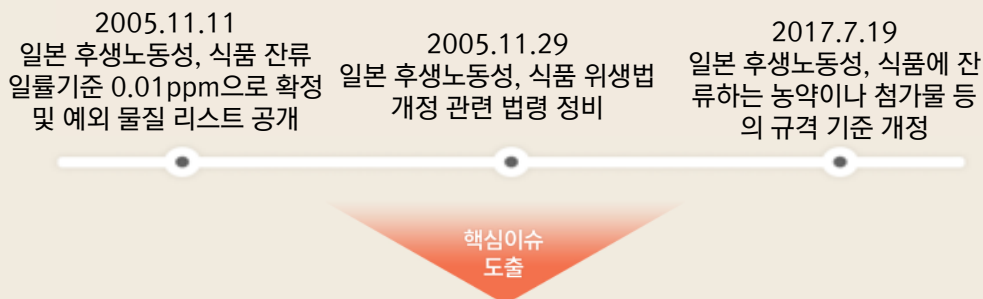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한국산, 해산물, 항생제, 모니터링, 기준치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일본, 한국산 양식 어류 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 모니터링 강화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한국산 양식 어류 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 모니터링 강화

2017년 9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양식 어류에 대해 항생제 일종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성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은 의약, 농약, 식품 저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항생제 성분으로, 해산물 이외에 배추, 양파, 자몽, 사과 등과 같은 채소 및 과일에도 사용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실시한 한국산 신선 양식 송어 모니터링 검사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이와 같은 규정을 공식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2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산 송어를 수입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량 회수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식품명	기준치(ppm)
해산물(연어류)	0.2
해산물(장어류)	
해산물(농어류)	
해산물(기타어류)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최근 한국산 어류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허용량을 대폭 줄이고 모니터링 검사 과정을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ITC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산물 수입액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로, 현재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성공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기준치를 숙지하고 일본 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장애 요소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한국산 양식 어류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1572.html>

1. 薬生食輸発0906第1号「平成29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韓国産養殖さけ・ますのオキシテトラサイクリン）, 厚生労働省, 2017.09.06
2. 農薬等の基準値, 日本食品化学研究財団